



보도	2025.12.19.(금) 10:00	배포	2025.12.19.(금)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	책임자	국장 임권순 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장 김세훈 (02-3145-7587)

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

I. 개요

-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성 제기
 - 이에 주요 증권사·운용사 대상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* 실시
 - * (대상)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(6개),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(2개)
(기간) '25.12.3.~12.19.(회사별 2명업일)
(점검인원) 금감원(감독국, 검사국) 및 금투협회(소비자보호부) 공동으로 구성·운영
- ※ 점검 기간 중 업계 간담회(12.9.)를 통해 해외투자 과당경쟁 자제 등을 당부하고,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(12.15.)

II. 해외투자 관련 증권사 및 투자자 손익 현황

1. 증권사 손익(수수료 수익)

- 금년('25.1~11월) 중 주요 증권사*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.95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
 - *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사

【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(해외주식 관련) 수익 추이 】

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.1~11월
7,572억원	5,955억원	5,810억원	1조 2,458억원	1조 9,505억원

<참고> 증권사(주요 12개사) 환전수수료 수익 규모

- ✓ 해외투자 증개 등과 연계된 환전수수료(개인 대상) 수익도 약 4,526억원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

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.1~11월
1,885억원	1,328억원	1,477억원	2,946억원	4,526억원

2. 투자자 손익

- **(주식)**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'25.8월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(49.3%)이 손실계좌*이며,

* 기간 총손익 : (기말 평가액 - 기초 평가액) + (연중 매도액 - 연중 매수액)

- 계좌당 이익도 0.5백만원으로 전년(4.2백만원) 대비 크게 감소

【 개인투자자 해외 주식 손익 현황 】

구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.1~8월
손실계좌 비중	46.3%	58.8%	27.7%	29.7%	49.3%
계좌당 손익	2.0백만원	△4.6백만원	2.5백만원	4.2백만원	0.5백만원

- **(파생상품)**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이 지속 중

【 개인투자자 해외 파생상품(선물·옵션) 투자 현황 】

구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.1~10월
거래 대금	7,852조원	10,101조원	8,187조원	10,607조원	7,232조원
투자 손익	△4,151억원	△4,574억원	△4,458억원	△3,609억원	△3,735억원

Ⅲ. 실태점검 결과 주요 확인내용

1. 투자자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

- **(이벤트)**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美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

- 특히,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, 신규·휴면 고객 매수 지원금 지급,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

<사례1> 해외주식 일정금액(예: 월 1억원) 이상을 거래(매수·매도)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현금성 리워드 지급(예: 1만원 ~ 100만원)

<사례2> 해외주식 신규 고객 및 휴면 고객 등을 대상으로 주식 매수 지원금(예: 33\$) 또는 주식 1주(예: 애플, 테슬라 등) 등을 지급

<사례3> 해외주식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위탁거래수수료 및 환전수수료(증권사 수수료), 유관기관수수료(SEC 수수료) 등 수수료 전액 면제

- **(KPI)** 영업점 및 본점 KPI 등에 해외주식 시장점유율 및 수수료 수익 등을 반영하여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

<사례> 다수 증권사는 영업점영업부서 KPI에 해외주식 실적 관련 별도 배점을 부여하고, 일부 증권사는 관리부서의 KPI에도 해외투자 실적을 반영

2. 신용용자 및 위험고지

- **(신용용자)** 법상 금지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 신용용자* (소위 '빚투')는 미운영 중인 상태

* 증권사의 신용용자 대상 증권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(금융투자업규정 제4-30조)

- **(위험고지)**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*에 대한 고객 안내가 부족

* 환율 변동 리스크, 국가별 시차 등에 따른 권리지급 지연, 과세체계 차이 등

- 대부분 최초 계좌 설정 시에만 약관 등을 통해 위험을 고지하고 있었으며, 일부 증권사만 고객에게 상시 안내 중

<사례> HTS/MTS 상 '해외 직접투자(주식) 유의사항' 화면을 추가하고 관련 제도 변경사항 등을 지속 업데이트하여 고객에게 상시 안내

3. 파생상품

- **(내부통제 및 투자자보호)** 개인투자자 대상 원본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해외 옵션(콜,풋) 매도는 증권사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음

- 한편, 최근 과당광고 이슈가 있었던 증권사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美 주식 옵션 서비스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

<사례> 美 주식 옵션 모의체험 서비스 운영 시 '엔비디아 5% 오르면 214% 수익', '메타가 3% 오르면 191% 수익' 등의 문구로 홍보

IV. 대응방향 및 향후 계획

□ (대응방향)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검사 즉시 전환*

* 자산운용사 실태점검은 대상 회사를 확대하여 지속 실시

※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,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,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·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 예정

○ 또한, 증권업계에 만연해 있는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 행태를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선과제 즉시 추진

①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* 및 광고 등 중단(~'26.3월**)

* 거래금액 비례 현금성 리워드, 매수 지원금 및 주식(1주) 제공 등

** 업계 자정 노력, 시장 상황, 제도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 판단 예정

② 각 증권사별로 HTS/MTS, 팝업 등을 통해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 강화(연내)

③ '26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·광고, KPI 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제(연내)

④ 과당매매 유발 소지가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*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('26.1분기 중, 협회 규정 개정 필요)

* 증권사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(과당매매)를 유발하고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
 ☞ (예시) 고객이 200억원의 해외주식 거래 시 증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로 4,000만원(MTS 수수료 0.20% 적용)을 수취하고 50만원을 투자자에게 지급

□ (향후 계획) 증권사 대상 현장검사에 즉시('25.12.19.) 착수하고, 이후 대상 회사를 확대하여 순차적으로 검사 실시 예정

○ 추가로 협회·업계 논의를 통해 개선 과제 신속 반영·추진

【 과제별 추진 일정 】

개선 과제	'25년	'26년		
	12월	1월	2월	3월
※ 현장 검사 실시(실태점검 병행)				
① 신규 현금성 이벤트 중단				
②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				
③ '26년 사업계획 반영				
④ 비례 이벤트 금지 제도화				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